

땀질식 복구 수두룩...주민들 “비오면 어쩌나”

본격 장마철 재해위험·상습침수지역 둘러보니 “올해도 위험한 철길 건너야 하나요?” 불안 배수펌프장 착공도 못해 농경지 침수 우려

▶광주시 광산구 삼막동 전묘(여·75)씨는 매년 장마철 도로가 물에 잠기면 3m 높이 언덕을 올라가 철길을 건너는 ‘아찔한’ 일을 반복해왔다. 벽파마을 입구인 벽파 삼거리 일대가 침수되면 20세대 40여명의 주민들은 이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버스 정류장까지 철길을 따라 이동해왔다는 게 전씨 설명이다. 벽파마을은 매년 장마철이면 황룡강 하천 수위가 상승, 농경지와 도로 등 45ha가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지역이다. 몇 년간의 물난리를 겪고 난 뒤에야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가 진행됐지만 2017년 완공 예정이라 그동안 몇 차례 침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보성군 검백면 도림마을 주민들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도림마을은 지난해 주막 9가구와 일

대 농경지(3ha)가 침수되는 등 해마다 수해 피해를 입어왔다. ‘수해상습지’로 지정, 배수펌프 설치가 시급하지만 보성군은 예산(40억) 형편을 내세워 선제적 예방 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보성강댐 관리소에 대한 주민 불만도 적지 않다. 집중호우 전 방류하는 등 땀수위를 조절할 경우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도 땀 관리소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 재해 위험 및 상습 침수지역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선제적 예방이 아닌, 응급 땀질식 복구 공사에 치중하는데 따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91개소(광주 11곳·전남 80곳)에 달하고 산사태 취약지구도 광주 45개소, 전남 1171개소에 이르지만 수해·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복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구간이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재해위험지구 80곳 중 25곳(31.25%)이 장마철에 접어들었음에도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등이 완료되지 못했고 그나마 55곳은 예산 부족 탓에 관련 공사조차 들어가지 않아 일대 주민들의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다. 지난해 침수 피해로 특히 무너졌던 영광 외탄천의 경우 무너진 부분만 임시 복구했을 뿐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하천 주변 정비 공사 등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같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영광군 법성면 발막 지구의 경우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여태껏 착공조차 되지 않아 또

다시 농경지 침수 불안을 안고 있다. 지난 2월 아파트 뒤편 용벽이 무너져 응급복구를 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도 폭우가 내릴 경우 용벽 위 토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주민 불안이 높다. 남구는 용벽이 무너진 66.38m 구간에 대한 응급 복구를 지난 25일 마무리했지만 붕괴 우려가 제기된 나머지 4개 구간(1등 급·277.4m)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등 향후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주민 피해와 민원이 빚뻗치는 데도 ‘인명피해의 우려가 적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주택과 농경지 침수보다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수십억 공사비를 투자하기 힘들어 정부 지원을 받아내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찰, U대회 만점 활약...영국조직위원장 가방 찾아줘

광주경찰이 2015 하계U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영국조직위원장의 잃어버린 가방을 되찾아주는 등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2시30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 U대회 선수촌 개촌 식에 참석한 영국조직위원장 윌리엄 존 워넬씨로부터 휴대전화가 든 손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되찾아줬다. 앞서 같은 날 광산구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미국선수단 코치진이 선수촌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인계됐다. 또 U대회 숙영지 점검하던 경찰은 절도범이 한 농가에서 가축 한 마리를 몰래 훔쳐가려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붙잡는 등 U대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우리 동네 앞산 등산로 정비 구간

구별	상반기		하반기(사연비 재배정안)		연장	
	산이름	노선구간	산이름	노선구간		
동구	무등산	구와산(지산동) 산책로	2.0	무등산	구와산(지산동) 산책로	
		만경사~정원봉	1.5	무등산	만경사~정원봉	
서구	중앙공원	백일초교~영주체육관(백일산)	3.0	금당산	원광대병원~신암교회~풍암제	3.4
		영주체육관~공원센터	1.7	금당산	원광대병원~신암교회~풍암제	
남구	제석산	진월동 현대A~주능선	1.6	짚봉산	봉주초교~짚봉산 정상	1.0
		현대A~주능선	1.7	짚봉산	160번 버스중점~할아버지구비길	
북구	한새봉	일동중~옥거리~양산동 자이(산책로)	4.2	삼각산	갯대봉 노씨제각~갯대봉	1.2
		광신대A~부용산~패럴랜드	2.0	삼각산	노씨제각~갯대봉	
광산구	어등산	절골삼거리~정수제	1.5	어등산	마당바위~석봉	2.1
		호남대 축구장~석봉	1.3	어등산	호남대(후문)~석봉	

우리 동네 앞산 오르기 쉬워진다

광주 상반기 8개 등산로 정비 하반기도 6개 구간 추가기로

금당산·제석산·짚봉산·삼각산·어등산 오르기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올 상반기 주요 등산로 8개 구간(17.7km)을 정비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민들 이용이 잦은 6개 구간(12.1km)에 대한 추가 정비에 들어가기로 하면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는 올 하반기 5억원을 투입, 금당산(서구), 짚봉산(남구), 삼각산(북구), 어등산(광산구) 주요 등산로 정비에 들어간다. 경사가 급해 등산객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을 선정,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 탐방로 구간에 걸 수 있는 벤치도 마련키로 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는 ‘식생매트’를 깔아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초행길 등산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표지판 등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풍암·금호동 주민들이 즐겨 찾는 금당산의 경우 원광대병원~신암교회~풍암제 구간(3.4km) 곳곳에 벤치가 놓이고 가파른 구간에는 목재 계단이 설치된다. 남구는 봉주초교~짚봉산 정상 구간(1.0km)을 대상으로 위험 구간 로프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나선다. 북구는 상반기 한새봉 등산로 2개 구간(6.2km) 내 로프난간, 목재계단 설치, 벤치와 비가림 시설 등 설치에 이어 하반기 삼각산 산책로(4.8km) 노면 정비 등을 추가로 맡아기로 했다. 광산구 어등산 정비도 이뤄진다. 광산구는 올 상반기 광주여대~동사봉~호남대 구간(2.3km)을 정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해당 구간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 정비에 들어간다. 동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무등산 자락인 지산동 구와산 산책로(2.4km)와 만경사~정원봉 구간(1.5km)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김형호기자 khh@



“U대회 성공 함께 합니다” 광주시 복구청 공무원들이 29일 용봉동 청사 광장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다짐 대회를 갖고, ‘U대회 복구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힌 부채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시 70억대 약정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미래산단 조성사업 관련 광주고법, 원심으로 유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나주시가 특수목적법인측과 진행중인 70억 원대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미래일반산단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래산단개발(주)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은 ‘나주시가 합의각서에서 이행할 약정한 74억4600만원을 특수목적법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주시와 미래산

단개발의 ‘미래산단 조성사업 합의이행각서’ 체결 행위는 나주시 추인으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나주시는 이행을 약정한 투자비 보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각서 체결이 시장 직무대행자의 배임 행위라는 나주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산단개발은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등 일대에 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전남도·나주시와 함께 미래산단 조성사업 민간투자 이행협정을 체결했다. 법인 소속 회사들은 이듬해 8월 나주시

에 전남도의 미래산단 지정·고시를 위해 먼저 투자한 용역비 89억7600만원 중 22억 4400만원 지원을 요청했고 시는 당시 보조금으로 15억6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010년 3월 협정을 해지키로 했고, 시는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74억 1660만원과 별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이후 약정한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주운 직불카드로 시내버스비 590여차례 써



○~광주 송암공원에서 살래시오교로를 오가는 시내버스 바닥에서 교통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주워 590여 차례에 걸쳐 버스비로만 수십 만 원을 무단사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9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모(48)씨는 지난해 12월 7일 동구 문화전당을 지나는 시내버스에서 나모(여·

24)씨의 직불카드를 주운 뒤 6개월간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나씨의 직불카드를 결제하는 등 65만 원 상당을 쓴 혐의. ○~나씨는 최근 통장 사용내역을 정리 하던 중 65만 원이 무단인출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직불카드가 사용된 시내버스 승차차지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고씨를 잡거. /박기용기자 pboxer@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야외 결혼식장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하여 운영 하실 분 환영!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단지
한마음연수원
담양댐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 금성 → 금과 →